

배기가스 획기적 감소 자동차 연료 개발

대만의 석유회사에 의해

대만의 한 석유회사에서 자동차배기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연료를 개발, 시판에 들어가자 기존의 석유판매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만桃園縣 觀音공업구에 있는 鴻恩萬達실업유한공사라는 석유회사. 이 회사는 30여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기존의 휘발유와 같은 에너지를 내면서도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배기가스를 거의 발생치 않는 CME라는 연료를 개발했다.

CME(Carbon Monoxide El-

iminotor)라는 이름은 일산화탄소제거제라는 뜻에서 따온 것. 이 연료는 메탄올에 특수 원료를 가미한 성분을 휘발유에 섞어 만든 제품이다. 이 연료는 시험결과 기존의 휘발유보다 옥탄가가 높고 황(S)의 함유량을 줄여주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일산화질소(NO) 등 배기가스를 제거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鴻恩萬達공사는 하루 5만톤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중국 석유공사에 합작을 제의했으나, 석유공사측은 이에 동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회사는 새 연료가 시판되면, 석유공사의 시장을 30% 정도 점유할 것이기 때문에 석유공사측이 합작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만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고, 미국에도 미국의 업체를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다. 이 회사는 좋은 연료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의 거절로 자국내에서의 판매신장이 어렵게 되자 한국·영국·독일·태국 등 해외석유업체에 합작을 요망하고 있다.

유럽과학기술 전산망과 접속 개통

한국-EU 기술협력 본격화

우리나라에서 전산망을 통해 유럽연합(EU)의 각종 과학기술 정보를 검색·교환하고 원하는 EU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보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시스템공학연구소(소장 金文鉉)는 大德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5대 국가기간 전산망의

하나인 연구전산망(KREONET)과 EU의 유럽과학기술전산망(EUROPANET)을 연결하는 개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국을 거쳐 EU의 과학기술 전산망 주관기관(DANTE)과 접속했으나 8일부터 직접 DANTE와 연결하여 필

요한 과학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산망을 통해 EU의 연구원과 과학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연구도 수행할 수 있는 가상 연구실(Virtual Lab)을 구성할 수 있어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